

敦煌 “藏經洞”의 生成 과정에 관하여

유태규*

<목 차>

- 一. 머리말
- 二. 藏經洞의 봉쇄시기
- 三. 藏經洞의 생성과정
- 四. 맺는말

一. 머리말

敦煌은 감숙성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현급 도시이다. 이곳은 고대 실크로드의 요충지이며 찬란한 문명을 지닌 불교성지였지만 13세기 이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20세기에 이르러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둔황 莫高窟 藏經洞의 생성 및 발견과정과 큰 관련이 있다.

藏經洞은 도사 王圓籙이 1900년 6월,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제 17호 석굴을 지칭한다.¹⁾ 장경동의 발견이야말로 왕도사의 최대 공적 중의 하나이다. 왕도사는 감

* 충주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1) 장경동의 발견 시기에 관해 두 가지 견해가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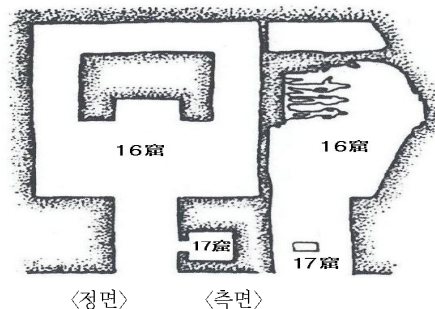
一種說法是根据<王道士催募經款草丹>中的記載“貧道誓愿募化補修爲念，至(光緒)貳拾陸年伍 月貳拾陸日清晨，----- 貧道同工人用鋤挖之，欣出閃佛洞一所 ----- 內藏古經万卷。”另一種說法是光緒二十五年(公元1899年)發現藏經洞，依据<王道士墓志銘>記載：“破壁則有小洞，豁然開朗，內藏唐經万卷，----- 光緒二十五年五月二十五日事也。” 전자는 王道士가 생전에 직접 모금한 일이 1900년 이라는 설인데, 이는 王圓籙<功德碑> 중의 “光緒二十六年五月二十六日清晨，忽有天炮響震，忽然

숙성의 肅州에서 병역을 마친 후, 돈황으로 이주한 뒤 출가하여 도교의 도사가 되었다. 그는 얼마 후 막고굴의 한 석실에 거주하면서 관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오랜 기간 전란에 시달리고 유랑하며 피폐해진 왕도사에게 막고굴은 편히 거처하기에 이상적인 곳이었다. 비록 도사의 신분이었지만 당시 도·불교를 함께 신봉할 수 있었기에 불교성지 돈황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다.

17호 石室(이하 장경동이라 칭함)은 일반적인 형태의 석굴들과 달리 제16호 석굴 내부의 북측 벽에 조성된 규모가 작은 결간굴이다.²⁾ 장경동은 20세기 고고학상의 중요한 발견 중의 하나로 석실의 길이는 약 1丈(약3.3m)이고, 높이는 약 6尺(약 180cm)이며, 넓이는 대략 4~5평 정도에 달하는 정방형의 석실이다. 석실 내부에는 쯤나라 말엽부터 南北朝 시대에 이르는 十六國 시대부터 北宋 시기의 각종 經卷과 문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경권은 대략 4~5만여점 이상인데 대부분 漢文이고, 그 밖에 티베트어(藏文)·회골어(回鶻文)·돌궐어(突厥文)·우전어(于闐文)·쿠차어(龜茲文)·속특³⁾어(粟特文)·梵語로 쓰여 있고, 대부분 寫本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일부는 雕版과 인쇄품 으로 되어 있다. 내용상으로 보면 불교 예술품과

山裂一縫, 師傳同工人用手挖之, 始見此窟。”이라는 내용과 부합하고 있어 신뢰할 만 하다. 그러나 후자는 다른 사람의 대필한 기록으로 신뢰성이 떨어진다. 여기서는 1900년 설을 따르기로 한다.

- 2) 장경동은 일명 “명사석굴”, 혹은 “돈황석실”이라고도 호칭하는데, 별도의 독립된 석굴이 아니라 당시 洪 대사가 직접 굴착한 俗稱 “吳和尚窟(T.16호)”의 내부에 특별히 건조된 小窟이다. 이곳은 만당시기 하서의 고승이며 都僧統이었던 泓辯이 수행하던 석굴로 咸通三年(AD862년)에 그가 열반하자 그의 제자들이 스승을 기리기 위해 影堂으로 만들고 내부에 告身碑를 세웠다.
 <藏經洞位置案內圖>



- 3) 우전(于闐)·쿠차(龜茲)·속특(粟特)은 모두 서역의 고대 민족임

사원의 문서가 중심이다. 그밖에 絹織·회화·旗幟·銅像 등도 발견되었다. 이렇게 풍부한 유서와 문물들은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귀중한 문화·예술·학술적 가치를 지녔으며 또 그로 인해 “敦煌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다양한 연구 활동이 성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 방향은 돈황 장경동의 봉쇄 시기와 봉쇄하게 된 원인을 밝혀 보는데 있다. 우리가 장경동에 대해 갖는 가장 중요한 궁금증은 언제, 무슨 이유 때문에 봉쇄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무슨 사정 때문에 협소한 굴속에 수 만점의 각종 예술품들을 안치하고 봉쇄한 뒤 외벽에 벽화를 그려 세간의 이목을 피하려 했는지 밝히는 것이 장경동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돈황학의 기본을 더욱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기존의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중국사관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사실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二. 藏經洞의 봉쇄시기

장경동의 봉쇄시기에 관해서는 장경동을 발견한 이래 학자들마다 상이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몇몇 주요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차례	시 기	대 표	기 타
1	AD.995년이후	Pelliot, Stein ⁴⁾	北宋 至道 元年
2	AD.1002년 이후	藤枝晃, 何昌林	
3	AD.1002년 - AD.1014년 사이	賀世哲	
4	AD.1002년 - AD.1030년 사이	白濱	
5	AD.1006년 이후	榮新江	

6	AD.1030년 - AD.1035년 사이	畢素娟	
7	AD.1035년 이전	羅振玉, 姜亮夫, 閻文儒	西夏 침공 이전
8	AD.1049년 - AD.1054년 이후	陣垣, 石璋如, 馬世長	北宋 皇祐 年代
9	AD.1094년 - AD.1098년 사이	懸晴, 譚眞	北宋 紹聖 年代
10	AD.1228년 이전	關百益	몽고군 침공 이전
11	AD.1348년 - 1368년 사이	張維	元明시기

이상의 제설을 종합하여 장경동 봉쇄 시기를 다음과 같이 귀납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서하가 돈황을 점령하기 이전, 둘째는 서하가 돈황을 점령한 이후, 셋째는 元代, 넷째는 明代이다. 이 중 元明說은 역사적인 사실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재고의 가치가 없다. 그리고 서하가 돈황을 점령한 이후로는 설 역시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서하는 불교를 신봉한 민족이며, 돈황을 점령한 이후, 오히려 불교의 보호와 발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기

- 4) 장경동의 사적은 중국인의 손에 의해서가 아닌 두 사람의 외국인 즉, 스테인과 펠리웃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장경동 문물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스테인은 1906년에서 1908년 까지 중국의 서북부, 누란유지와 하서회랑, 막고굴 등지에 대한 고고 답사를 한 바 있다. 그가 1907년 3월 돈황에 도착했을 때 조수 장효완을 통해 장경동의 비밀을 접하게 되었다. 그는 비록 한어를 구사하지 못했지만 왕도사의 무지를 알고 금전으로 매수하고 감언으로 유혹하여 24상자의 사본과 5상자의 그림 및 공예품을 밀반출하였다. 펠리웃은 한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한학에 정통한 학자로서 1900년 북경에 도착하여 중국고적과 문물 등을 구매하고 수집하는 일에 종사하였다. 1906년 6월 우루무치에서 고고 답사를 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장경동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자 결국 투루판 답사 계획을 포기하고 1908년 2월에 막고굴에 도착하였다. 당시 왕도사가 출타 중이어서 그는 막고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및 정리 활동을 시작하였다. 지금도 그의 연구 업적이 오늘 날 돈황 석굴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왕도사가 돌아온 후, 펠리웃은 유창한 한어 실력으로 호감을 사게 되었고, 역시 금전으로 그를 매수하여 상당량의 고적과 문물을 절취하였다. 그러나 펠리웃은 직접 왕도사의 안내를 받고 장경동에 들어가 직접 선별을 하였고, 스테인은 왕도사가 건네 준 것이기 때문에 수량으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질적으로는 훨씬 우수한 것을 수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일은 펠리웃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막고굴을 답사하였지만 아무도 답사와 관련된 활동과 왕도사와의 접촉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오직 유일하게 스테인만이 《西域考古圖記》(〈原題: Serindia〉)라는 책을 지어 돈황에서의 활동과 왕도사를 매수하여 장경동의 문물을 절취하는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있어 당시의 정황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때문이다.⁵⁾

필자는 서하가 돈황을 점령하기 이전 시기, 사방에서 압박해 오는 전란의 화를 피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 시점이 장경동의 봉쇄 시기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비록 입증할 만한 명확한 시간 기록을 제시할 수 없지만 봉쇄원인 규명을 통하여 대략적인 봉쇄 시기는 밝힐 수 있다고 본다.

三. 藏經洞의 生成 과정

장경동은 殷墟의 甲骨와 함께 20세기 들어 가장 귀중한 고고학상의 대발견인데, 이는 소장품 들이 시간과 내용, 그리고 수량과 가치 등의 여러 분야에서 소중한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장경동에 대한 최대의 관심사는 왜 봉쇄되었는가? 또 무슨 원인 때문에 상당량의 귀중품을 동굴 속에 은폐시키고 위장을 하여 보호하려 했는가? 하는 점이다. 장경동을 발견한 이래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해답을 얻으려 시도하였다. 그러나 100여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봉쇄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설이 회자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근거하면 장경동의 봉쇄 원인을 대략 다섯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첫째는 戰禍피난설, 둘째는 廢棄설, 셋째는 書庫개조설, 넷째는 佛教供養說, 다섯째는 吐蕃統治排擊說이다. 이 중 書庫개조설과 佛教供養說 및 吐蕃統治排擊설은 논리적인 근거 및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므로 추후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⁶⁾

5) 《敦煌文學》 張錫厚 (上海古籍出版社, 1980) p.6 “現存的石窟共四九六個, 其中北魏二二個·隋代九十個·唐代二百六個·五代三二個·北宋百三三個·西夏三三個·元代八個·清代五個. 各個時代開鑿的石窟在構造藝術·繪畫風格上都各有特色, 組成了敦煌文化藝術的中心寶庫.”

6) ①“書庫改造說”: 이 견해는 일본의 저명한 돈황학 전문가인 藤枝晃이 처음 제기하였다. 그는

AD1000년 경 刊本 형태의 佛經이 중원에서 돈황으로 전해진 뒤 여러 사원에서 불경의 사용에 편리하도록 서고를 개조할 필요성이 대두되기에 이르자 기존의 사용하기에 불편하던 두루마리 형태의 불경과 소장품들을 함부로 폐기하지 못하고 동굴에 보관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어떤 학자는 막고굴 사원에서 매년 여러 차례 성대한 법회와 각종 불교의식, 그리고 중요한 불교의 절기를 거행할 때 마다 사원에서 보관하던 두루마리 경전이 종종 분실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원 측에서 전문 관리인을 파견하여 관리하였는데, 결국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동굴 속에 영구히 보관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②“불교공양설”: 이 설은 장경동의 보물들이 모두 불교의 공양물이라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陝州 戒幢 佛學研究所 연구원인 文正義가 제기한 것으로 장경동 봉쇄 원인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관점으로부터 벗어난 독보적이며 참신한 견해로서 인정받고 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장경동의 봉쇄된 원인은 불교 물품들이 집중적으로 공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식은 불교계의 빈번한 현상이고, 매우 경건한 일종의 종교 행위로서 외부의 강압과는 전혀 무관한 채 오직 돈황의 불교 교단에서 스스로 결정한 결과이다.

이상의 “서고개조설”과 “불교공양설”이 일리는 있지만 그렇다면 왜 장경동의 외부에 벽화를 그려 위장하고 은폐하려 시도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되기에는 충분치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③“吐蕃統治排擊說”: 이 견해는 돈황의 현지인들이 토번 통치의 영향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롯된 것이라는 설이다. 이 주장은 일본의 저명한 돈황 불교연구 전문가인 上山大峻이 제기하였다.

장경동에는 티베트어와 漢語 및 토번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 중 토번의 돈황통치시기(786~848) 돈황의 저명한 승려인 法成과 縣曠 등의 저술과 佛經注疏 등과 같은 불교 자료가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장경동에서 가장 많은 寫經이 발견된 삼계사와 정토사는 바로 토번 통치 시기의 양대 사찰인 영강사와 영수사가 개명된 것인데, 이 두 사원에는 토번 통치 시기의 자료가 가장 많이 남아 있다.

吐蕃은 7세기 초기 松讚干佈 시기에 점차 강성해졌으며, 8세기 후기(756~763) 掘松德贊 시기에는 唐의 安史의 난을 빌미로 隴右와 河西, 그리고 서역을 점령하여 하서와 중원의 연결통로를 차단하는데 성공하였다. 766년 토번이 사주성을 포위 공격하였는데 중원과 연결된 돈황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처한 채 장기간의 저항투쟁을 하였지만 결국 식량과 무기가 고갈되어 786년 토번에게 복속하고 투항하였다. 9세기 중엽에 이르러 토번의 통치집단 내부의 갈등으로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848년 장의조가 군사를 통솔하여 돈황지역에서 토번을 축출하였다.

장씨귀의군 시기(848~914) 漢人들은 토번 통치 시기의 영향을 배제하고, 또한 굴욕적인 역사의 상흔을 지우기 위해 토번 통치 시기의 자료들을 영구히 보존하기로 결정하고, 적합한 장소로 선택한 곳이 바로 토번 통치 시기 가장 활약이 돋보였던 “吳家窟”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달리 토번정권은 돈황의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불교를 통치의 주요 근간으로 내세웠다. 그들이 돈황을 통치하는 약 반세기 동안 불교를 옹호하고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승려의 신분도 크게 향상되었고, 政事에도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 힘입어 토번통치 후기에 이르러 인구 약 이만오천여명의 사주에 불교사원이 17개, 승려 수 약 일천여명에 달하는 불교성지로 변모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1. 戰禍피난설

장경동을 봉쇄한 원인이 전란과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인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西夏 피난설이고, 둘째는 黑汗왕조 피난설이라는 견해이다.

1-1. 西夏 피난설

피난설은 펠리웃이 처음 제기하였으며⁷⁾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 설에 근거하여 유사한 주장을 확대·발전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막고굴 승려들이 전란으로 인한 파괴와 유실을 피하기 위해 다량의 전적문서와 예술품을 밀실에 보관한 것이 장경동을 봉쇄하게 된 원인이라 보고 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대체로 이 견해에 동조하고 있는데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막고굴의 승려들이 서하의 침략을 피하기 위해 물품들을 동굴에 은닉시켰다는 견해이다. 장경동에서 발견된 문헌 가운데 연대가 기록된 사본 중에서 가장 늦은 것이 함평 5년(1002년)에 씌여 졌기 때문에 문헌 중에 서하의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 만일 서하가 돈황을 점령한 이후에 장경동이 봉쇄되었다면 돈황에서 서하의 문자가 유행하였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서하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장경동을 고안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둘째, 1036년 돈황이 서하에 의해 점령당하자 막고굴의

근거해 볼 때 토번 정권이 돈황의 불교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는데, 단순히 토번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장경동을 고안하게 되었다는 견해는 논리적인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돈황강사변문연구》 유태규 (성균관대학사학위논문,1993) p.11 참조

敦煌的歷史和文化 寧可·郝春文 (신화출판사,1993) p.73-75 참조

7) 그가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경동에서 발견된 사본 중에 年號가 가장 늦은 것이 태평흥국시기(976-983)에서 至道년간(995-997)이고, 둘째, 발견된 사본 중에 서하의 문자가 없으며, 셋째, 소장되어 있는 사본·그림·등의 물품이 산만하게 방치되거나 혼잡스럽게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점에 근거하여 그는 장경동이 봉쇄된 이유는 1035년 서하가 돈황을 침공할 때 승려들이 이 소식을 듣고 황급히 사찰에 있는 귀중품들을 은닉하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후 羅振玉·姜亮夫·白濱 등도 펠리웃의 견해에 동의하였다.

승려들이 전화를 피해 수 만점의 전적과 물품 등을 동굴에 안치한 뒤 벽을 쌓아 은폐했다는 견해이다. 이후 승려들이 도처로 몸을 피한 뒤 장기간 귀환하지 못하게 되자 장경동의 비화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막고굴의 승려들은 서하군의 침략 시 그들의 신앙을 알지 못하였다. 승려들은 그들이 점령한 후에 불교에 대한 탄압과 파괴가 두려웠기 때문에 사원 중의 불경과 예술품들을 동굴에 은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견해는 대체적으로 서하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장경동을 고안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서하는 불교를 신봉하였고, 다만 통치의 중심이 과주⁸⁾로 바뀌었기 때문에 불교의 중심지도 자연 막고굴에서 안서계림굴로 바뀌어 장경동 사건은 점차 잊혀지게 되었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기에 이르게 된 것이다.

1-2. 黑汗王朝(일명“喀喇汗國”)피난설

이 견해는 殷晴에 의해 최초로 제기 되었다. 黑汗王朝는 중국의 돌궐족과 回鶻 민족이 건립한 왕조로서, 송과는 무역관계를 유지할 정도로 친밀하였지만 서하 정권과는 적대관계에 있었다. 11세기 초에 이르러 이들은 불교정책을 포기하고 新疆 지역에서 최초로 이슬람교를 신봉하여 이 지역의 이슬람화를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이르는 곳마다 불교사원을 훼손하고 승려들을 축출하여 불교도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으며, 돈황 지역의 불교계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紹聖 연간(1094-1097)에 이르러 흑한왕조는 송으로부터 서하 공격을 허락 받았다.⁹⁾

殷晴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장경동의 봉쇄는 사주의 승려들

8) 지금의 甘肅省 安西縣으로 동서 교통로상의 요지이고, 역사적인 지위 또한 대단히 중요한지역이다.

9) 西夏는 당 말기 黃巢의 亂을 진압하는 공을 세워 당 왕조로부터 李氏 성을 받았다. 송 건립 후 서하의 수령인 李元昊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송에 반기를 들었다. 이런 점을 달가워하지 않던 송으로서는 黑汗이 서하를 침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黑汗이 12C 초 西遼에게 멸망당하였으므로 서하 공격은 사실상 무위로 끝나고 말았다.

이 서해공격 소식을 접하고 난 후, 흑한왕조의 불교성지에 대한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북경대학의 榮新江 교수는 殷晴의 견해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그러나 그는 장경동의 봉쇄시간을 于闐國이 黑汗왕조에게 멸망당한 1004년 이전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970년 우전국 왕이 우호관계였던 귀의군절도사 조원충에게 黑汗왕조의 침략을 막아 달라는 간청을 하였는데, 우전이 함락 당하게 되자 상당수의 우전인들이 돈황으로 망명하여 흑한왕조가 불교를 탄압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막고굴의 승려들이 장기간 보존하고 있었던 대량의 불경과 불화, 그리고 다양한 예술품들을 장경동에 은닉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黑汗왕조가 바로 동진 정책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고굴의 승려들에 의해 자발적인 보호 행위가 이루어지고, 봉쇄한 벽 위에 벽화를 그려 은폐한 뒤 승려들이 모두 내지로 떠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지게 되었다는 견해이다.

우전국과 돈황 曹氏歸義軍 정권의 관계는 우호적이어서 상호 통혼하고 매년 사절이 왕래하였다.¹⁰⁾ 이러한 활동은 막고굴과 장경동의 일부 문서에 보존되어 있는데, 특히 우전국왕 李聖天과 그의 딸 天公主 등의 모습이 동굴의 벽화로 남아 전해지고 있어 양국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고 교류가 활발했음을 알 수 있다.¹¹⁾

조씨귀의군 시기 중원은 오대십국의 혼란과 전화를 거쳐 송이 건국되었지만 이미 당 말기부터 서역경영과 실크로드를 방치하였다. 이 때문에 돈황 일대가 명의상 송의 영역이었지만 중원과 서역으로 진출하려는 교두보로서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장기 분쟁지역으로 전락하였다.¹²⁾

10) 曹氏歸義軍은 張義潮가 세운 한족의 지방정권인 張氏歸義軍이 沙州를 통치한 시기(851-906)를 계승하여 건립한 지방정권으로 曹仁貴(一名'曹議金')를 시작으로 후대 曹賢順에 이르는 시기(914-1037)인 五代에서 宋初까지 이 일대를 통치하였다. 于闐國 왕 李聖天은 조씨귀의군 曹仁貴의 장녀를 황후로 삼았으며, 그의 셋째 딸은 귀의군절도사 曹延祿에게 출가하였다.

11) 제98호 막고굴의 동벽 남측에 이성천 부부의 供養像과 題名이 있고, 제61호 막고굴에는 “大朝 大于闐國天冊皇帝第三女天公主李氏爲新受太傅曹延祿姬供養”이라는 題記가 보존되어 있다.

12) 동쪽은 黨項族의 서하, 서쪽은 이슬람 정권인 黑汗왕조, 북쪽은 廻鶻, 남쪽은 羌族과 吐蕃에 의해 포위되어 고립되기에 이르렀다.

2. 廢棄설

이 견해는 장경동의 소장품들이 버려진 폐기물이라는 견해이다. 이것은 장경동의 소장품들의 상태가 파손이 심하거나 유행이 지나서 폐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원에서 사용하던 경전류와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관념 때문에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고 신성한 폐기물로 취급하여 한 곳에 모아 보관하게 된 것이다.

폐기설은 스테인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장경동에 소장되어 있던 소장품들이 돈황의 여러 사원에서 특별히 수집된 신성한 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로 개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일본의 藤枝晃도 기본적으로 이 견해에 동의하면서 AD1000년 무렵 중원에서 인쇄된 불경이 沙州로 전해지자 이전에 사용되던 寫本 불경이 신성한 폐기물 신세로 전락하여 보관하게 되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의 土肥義和 역시 이 견해에 동조하였다.

方廣鎰도 원칙적으로 이런 견해를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있다. 즉 藏經洞에서 완전한 형태의 대장경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들면서 조씨 정권 말년에 돈황의 각 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정리하던 중 파손되거나 쓸모없는 經卷, 시간이 지난 문서 및 廢紙, 佛畫 및 佛像 등을 모두 藏經洞에 보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펠리웃을 위시한 이상의 여러 학자들이 장경동의 소장품을 신성폐기물이라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서북인도 등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신성한 물건들을 포장하여 매장하는 오랜 전통과 풍습에 비추어 보면 일리 있는 견해라고 생각된다. 사실 장경동에서 발견된 불경과 문서들 중에서 파손과 缺字가 심하거나, 한 면에는 불경이 다른 한 면에는 사회경제 상황이 양면에 기록된 것을 보면 폐지로 이용하고 난 뒤 폐기한 것이 아닐까? 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제기한 폐기설에 대해 몇 가지로 구분하여 폐기설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고대 중국에서 종이와 대단이 진기하였고, 또 중국인들은 문자가 기록된

종이마저 귀중히 여기는 전통이 있었는데 돈황 같은 변경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돈황 유서 중의 抄經 기록에 따르면 초경할 때 종이를 수령한 사람은 장부에 기록하였다. 만일 잘못 쓰면 종이를 교체해 주는데 폐지가 된 종이는 버리지 않았고,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둘째, 오랜 기간 사용하고 난 불경은 파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신성한 물품으로 간주하여 소장해서 공양하는 전통을 존중했다.

셋째, 송대에 이르러 사천 일대의 刻本 佛典을 돈황지역에 전달하고, 조정에서도 금은판 대장경을 하사하여 돈황에는 경전이 풍부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략 조씨귀의군 말기의 제7대 절도사 曹宗壽(1002-1014) 때에 돈황 사원의 도서를 정리하여 무용한 殘卷과 문서 및 폐지를 불교벽화가 그려져 있지 않은 洪辯의 影堂인 17호 굴에 안치하고 봉쇄하였다.

넷째, 귀의군 말기에 이르러 종이가 대량 생산 유통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때문에 돈황 일대에서도 종이 사용에 부족함이 없게 되었고, 또한 刻本의 등장으로 인해 돈황에서는 이전의 파손된 구사본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자 여러 사원의 구경전과 물품들을 동굴 속에 넣어 보존하게 된 것이다.

폐기설을 주장한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문서와 실용가치가 떨어진 경전들을 굴속에 안치하여 봉쇄한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물론 불교계에서 신성한 경전을 함부로 훼손하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동굴 속에 폐기 처분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기할 물품이라면 왜 접근하기 어렵고 협소한 동굴을 선택하여 안치하려 했으며, 또 그 입구에 외벽을 쌓은 뒤 위장을 하기 위해 벽화를 그려 은폐를 시도하려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때문에 필자는 장경동이 폐기설이라는 주장에 대해 성급한 추론이라 생각한다.

四. 맺는말

본 논문은 藏經洞의 봉쇄시기와 생성과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상기한 바와 같이 장경동의 봉쇄시기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역사적 근거와 논리성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때문에 기존의 주장과 역사적 정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추론에 도달할 수 있다. 즉, 11C 초엽 막고굴 三界寺의 승려들이 여러 사원에서 소장하고 있던 다량의 불경과 불화, 그리고 종교 및 사회, 예술 관련 물품들을 17호 굴에 안치하고 벽을 봉쇄한 뒤 그 위에 벽화를 그려 은폐를 시도한 것이 장경동의 탄생 과정이다.

장경동의 봉쇄원인에 관하여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귀납해 볼 수 있다.

펠리웃이 장경동의 봉쇄는 서하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한 이후, 여러 학자들이 모두 서하와 관계있는 것처럼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과연 장경동의 산생이 서하로 인해서 야기되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추론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첫째, 16호 석굴의 벽화는 조씨귀의군 말기에 장경동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장경동 봉쇄 시간은 당연히 서하 침략 이전으로 소급함이 타당하다.

둘째, 당시 실크로드를 통한 동서간의 소통과 교역으로 인해 서하가 불교를 옹호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서하인들 역시 불교를 신봉하였으며 다만 돈황을 점령한 이후, 통치 중심지가 瓜州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장경동 사건은 서서히 잊혀지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서하가 돈황을 침공하면 불교성지가 파괴당할 것이라는 주장은 건강부회적 발상이다.

셋째, 막고굴에는 서하 점령시기의 기록도 있고, 심지어 직접 석굴을 굴착하여 불교를 포교하고 보호하는데 적극적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서하침공 대비설은 근거가 충분치 않은 무리한 견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서하의 李元昊는 黃巢의 亂을 진압하는데 공로를 세워 당 황실로부터 李氏 성을 하사받았으며 복속할 것을 맹약하였다. 때문에 漢族의 입장에서 보면 돈황을 점령한 서하는 은혜를 저버린 배신자라는 중화사관적 발상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장경동의 봉쇄는 서하의 침공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는 무리한 결론에 집착하도록 만든 것이다.

다음은 장경동의 봉쇄가 흑한 왕조의 침략위협으로부터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懋晴은 서하와 적대관계에 있던 흑한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이후, 송으로부터 서하공격을 허락받자(1094~1097) 그들에게 점령당한 불교성지 돈황이 파괴될 것이 명약하기 때문에 보호 예방 차원에서 장경동을 고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懋晴이 추론한 시기에 앞선 1004년 경 불교를 신봉하던 于闐國¹³⁾이 黑汗왕조에 의해 멸망당하였는데, 오히려 이 사건이 막고굴의 승려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불경과 불교 예술품들을 은폐토록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榮新江 역시 장경동 봉쇄 원인을 흑한의 침략 위협에서 승려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낸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는 懋晴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그는 봉쇄시간을 970년으로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우전국 왕이 귀의군절도사 조원충에게 흑한의 침략을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970년 흑한에 의해 함락당하자 많은 사람들이 돈황으로 망명하여 흑한이 불교를 탄압한다는 소식을 전하였고 이에 자극받은 돈황의 승려들이 자발적인 보호행위가 장경동으로 탄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榮新江이 제기한 970년이라는 시간은 앞서 懋晴이 제기한 1004년 설보다 무려 35년이라는 시차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흑한의 군사가 돈황에 당도하기 앞서 1036년 서하의 군사가 먼저 돈황을 점령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 근거로 미루어 보면 이슬람국가인 黑汗왕조가 불교국가이며 돈황 曹氏歸義軍 정권과 우호적인 于闐國을 멸망시키고, 서하와 적대관계에 있던 흑한이 계속 돈황을 침공하는 여러 가지 위기상황이 장경동의 봉쇄를 초래하게

13) 우전국은 서역국가 중 최초로 불교를 신봉한 서역국가로서 불교문화가 발달하였다.

된 직간접적인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970년, 조씨귀의군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우전국의 멸망은 둔황 정권에 심각한 정서적 불안과 공황을 초래하였고, 또 그들의 망명과 증언을 통해 전해들은 바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상황들이 막고굴의 승려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불교 관련 물품들의 보호조치를 강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탄생한 것이 바로 17호 藏經洞이다. 그러나 장경동의 탄생은 970년이라는 한 시점에 계획되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장기간 은밀하게 추진되어 완성된 결과물이라 추측된다.

《參考文獻》

- 季羨林 敦煌學大辭典 中國：上海書畫出版社, 1998, pp. 61-62
- 雪梨 中國絲綢之路辭典 中國：新疆人民出版社, 1994
- 宁可 敦煌的歷史和文化 中國：新華出版社, 1993, pp. 71-122
- 張錫厚 敦煌文學 中國：上海古籍出版社, 1980
- 趙曉星 敦煌落蕃舊事 中國：民族出版社, 2004
- 吳越 敦煌歷史人物 中國：民族出版社, 2004
- 屈直敏 敦煌高僧 中國：民族出版社, 2004
- 裴智勇 大夢敦煌 中國：新疆人民出版社, 2000
- 陣舜臣 敦煌的歷史 中國： 삼련서점, 1981
- 榮新江 敦煌的興衰及其在中國歷史上的地位 中國：歷史百題
- 施萍亭 敦煌與莫高窟 中國：돈황연구, 1981
- 馬德 吐蕃統治敦煌初期的幾個問題 中國：돈황연구, 1987-1
- 劉光華 敦煌上古歷史的幾個問題 中國：돈황연구
- 馬德 沙州陷蕃年代再探 中國：돈황연구, 1985-3
- 陳國燦 唐朝吐蕃陷落沙州城的時間問題 中國：돈황학집간, 1985-1
- 劉玉權 西夏時期的瓜沙二州 中國：돈황연구
- 蘇瑩輝 瓜沙史事述要 大만：한학연구, 1985, 4-2
- 霍旭東 敦煌藏經洞的發現與被盜的前前后后 中國：甘肅史話
- 유태규 敦煌講史變文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93

《中文提要》

敦煌莫高窟是絲綢之路上的佛教聖地，17號藏經洞被譽為佛教聖地上的一顆燦爛的明珠·佛教文化的結晶。公元1900年6月22日，即清光緒二十六年五月二十六日，敦煌莫高窟“藏經洞”被意外發現，這是中國20世紀的考古大發現。洞內堆滿了從十六國到北宋時期的總數五萬件以上的經卷和文書。那麼，藏經洞到底是什麼！特別藏經洞的真實的歷史面貌，藏經洞的封閉原因和時間都內涵着什麼！藏經洞發現以來眾多學者都要解決封閉的時間和原因，進行了大量的研究與思考，發表了一系列的文章，藏經洞封閉的原因仍是個迷。關於藏經洞的封閉原因，主要有五種大的觀點，一是避難說，二是廢棄說，三是書庫改造說，四是佛教供養說，五是排蕃思想說。對於每一種觀點，學者們的具体意見和解釋又各有不同的或區別。本論文里，按歷史的事實和客觀的情況，力圖探討封閉的原因。

關鍵詞：藏經洞，王道士，吐蕃，西夏，黑汗王朝，曹氏歸義軍，于闐國，避難說，廢棄說